

“언어로 언어를 깨부수다”

〈벽암록〉완역 기념 지현 스님 특강 지상중계

최근 국내 최초로 〈벽암록〉 완역본이 출간돼 불교계 안팎의 찬탄을 받았다. 『종문제일서(宗門第一書)』로 꼽히는 〈벽암록〉을 10년이란 시간 동안 번역해 다섯 권의 책으로 펴낸 지현 스님이 7월 19일 출판문화회관 강당에서 독자와 만났다. 본사가 주최한 ‘벽암록 완역 기념 역사초청 특강-언어로 언어를 깨부수다’에는 150여 명의 불자들이 참석해 〈벽암록〉의 의미를 함께 되새겼다. 강의를 요약했다. <편집자 주>

생각의 흐름을 막지마라

선(禪)이란 말은 산스크리트어인 디야나(dhyana)를 음역(音譯)한 것입니다. 이 단어를 중국인들이 번역하기를 사유수(思惟修)라고 했습니다. 사유는 생각, 수는 생각을 두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은 곧 번뇌 망상이라고 배웠는데 그것은 잘못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은 깨울을 타고 흐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각과 감정이 막혀버리는 것이 번뇌 망상입니다. 생각이나 감정이 곧 번뇌 망상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버려라, 감정을 버려라라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생각은 나쁜 것, 버려야 할 것으로 여기게 됐습니다. 깨달음은 생각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흐름에 끼어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선이란 무엇인가? 일어선 전 미국에는 명상 붐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명상법이 인기를 얻었고, 서양인들은 명상을 통해 본성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명상의 가르침은 결국 언어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선에서는 불립문자(不立文字)라고 해서 말이 필요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선에서는 불립문자(不立文字)라고 해서 말이 필요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선에서는 불립문자(不立文字)라고 해서 말이 필요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라는 것입니다. 언어를 부정한다는 것은 언어를 떠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모든 감정의 마지막 매개 수단인 언어를 통해 생각을 잡아보자는 것이 바로 선입니다. 이러한 선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벽암록>입니다.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정확한 지도가 필요하듯이 선을 위한 지침서인 벽암록이 필요합니다. 이런 이유로 오히려 예전에는 <벽암록>을 볼 지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가 너무 정확하니까 산에 오르지도 않고 지도를 보고 외우는 병폐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100년 후에 다시 <벽암록>을 복간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지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생각과 감정의 ‘핀트’ 맞추기

그렇다면 선에서의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바로 생각과 감정의 핀트가 맞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여러분이 듣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보면서 본다는 것을 느끼는 것, 말하면서 말하는 것, 느끼는 것이 바로 자각입니다. 이러한 자각 기능의 평형을 잡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선에서의 공안 안에는 딱 하나의 문(問)이 있습니다. 조주 스님에게 어느 스님이 “조사선의 본뜻이 무엇입니까”하니 조주 스님이 “플 앞의 잣나무다”라고 답했습니다.

다. 이것은 일종의 암호입니다. 선에서의 공안을 깨달은 선사가 말하는 것의 표면적인 의미 말고, 왜 그런 말을 했는지에 대해 계속 의문을 갖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하고 공안을 자주 파고들면 사사건건 의심이 생깁니다. 그것이 공안 추구라는 것입니다. 돌보기를 놓고 종이에 빛을 쬐면 초점이 하나로 맞춰져서 종이가 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좋은 길 안내자를 만나자

<벽암록>은 선의 1700공안 중 공부하기에 적절한 공안 100개를 뽑아 하나하나에 주석을 달고 평론을 따로 붙여 설명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무(無)자 공안 하나만 다른 것은 다 필요 없다’고 배웠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자 화두가 나왔을 당시는 공안이 일반화되어 있고 모든 공안에 대한 기초가 되어 있을 때 무자가 나온 것입니다. 공안도 어떤 공안을 참고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 풀립니다. 이러한 것을 <벽암록>에서 설명해 놓았습니다. 공부하려면 선지식이 필요합니다. 선지식이란 쉽게 이야기하면 좋은 길 안내자입니다. 오늘날 선지식이 드물다고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궁금할 때 <벽암록>을 봐야 합니다. <벽암록> 자체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일러주는 자세한 지도이기 때문입니다.



종문제일서 〈벽암록〉을 완역한 지현 스님은 특강에서 〈벽암록〉의 가치와 선의 정신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Q 선정은 생각의 흐름을 주시하는 상태입니다. ‘나는 욕심도 없고 좋은 것 봐도 좋지 않다’고 느끼는 것을 선정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아는데 집착은 없는 경지가 바로 선정입니다.

Q <벽암록>에 혹 과장된 부분이나 빼고 읽어야 할 부분은 없습니까?

A 물론 있습니다. <벽암록> 제일 앞에 나오는 ‘수시’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과장이 심합니다. <벽암록>을 복간할 때도 이 부분은 ‘과장이 심하므로 빼야 한다’고 적었고, 저도 번역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Q 화두를 참구할 때 진언이나 자기가 만든 화두로 삼을 수는 없습니까?

A 진언은 집중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본인이 만든 것은 공안이라 하기 어렵습니다. 공안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이것이 정설이다’라고 인정됐고, 그것에 대한 답도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이 세운 의문은 자기도 가보지 못한 경지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정확한 나침반이 없는 것이요. <벽암록>에 있는 공안 중 하나를 잡는 것이 좋습니다.

Q 열불로도 깨달을 수 있습니까?

A 물론입니다. 열불선도 있지 않습니까? 관세음보살 부르면서 ‘부르는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공안이 됩니다. 생각이 다하고 다해서 생각이 없는 곳에 이르러 이것이 열불선입니다. 선에서는 공안을 통해 깨닫지만, 엄밀히 말하면 모든 것이 공안이 됩니다. 깨달은 이의 입장에서

는 모든 언어가 공안입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공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Q 꼭 공안을 가져야 선이 되는 것입니까?

A 그렇진 않습니다. 고요히 앉는 자재로 수행인 목조선에서는 생각이나 감정을 가만히 앉아 주시하는데, 이것이 너무 어려우니까 후대에 공안을 개발한 것입니다.

Q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사성제 팔정도 연기법에 대해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이러한을 만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은 이론과 수행법이 필요한 것입니까?

A 당시에는 누구나 영성이 높았습니다. 그러기에 사성제와 연기법 등을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번잡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알을알이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공안 같은 ‘강력한 처방’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 간절한 마음만 있으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현 스님은?

1969년 중앙일보 신춘문예 시(詩) 당선. 73년 동국대 불교학과 졸업. 이후 인도·네팔·티베트 등 불교유적지를 답사했다. 편·저·역서로는 <선시(禪詩)>, <선시감상사전> <바가바드 기따> <우파니샤드> <반야심경> <숫타니파타> <법구경> <불교를 찾아서> <선으로 가는 길> 등이 있다.

정리=여수령 기자
사진=박재원 기자

지현 스님이 말하는 벽암록은?

모소리 불태워진 후 되살아난 ‘부활의 책’

<벽암록>은 선종(禪宗) 문화의 종결산이다. 선은 불립문자(不立文字)로 시작하여 언어문자를 통한 탐구(不離文字)로 그 절정을 이룬다. 당대에 이미 선승들의 문집인 <조주록> <임제록> 등의 선어록(禪語錄)이 출간됐고, 송대에 이를 근거로 <조당집> <전등록>과 같은 방대한 공안사서(公案史書)가 출간됐다. 이후 본격적인 공안의 주석서가 나왔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벽암록>전10권이다. 설두 중현(雪竇重顯)이 <전등록> <조당집> 등에 나오는 1700칙(則) 공안 가운데 100칙을 골라, 하나하나에 계승(偶頌)을 달았고, 원오곡근이 각칙(各則)에 수시(誦示, 서문)·착어(著語, 촌평)·평장(評唱, 비평)과 해설을 덧붙여 이루어졌다.

<벽암록>은 강그리 불에 탔다가 약 190년 뒤에 되살아난 ‘부활의 책’이기도 하다. 원오의 제자 대해종고(大慧宗杲)는 <벽암록> 판각과 진본을 모두 회수해서 소각해 버렸으나 그로부터 약 190년 뒤에 거사장령원에 의해서 복간됐다.



두 시간에 걸쳐 진행된 강의를 끝내자 불자들이 지현 스님에게 박수를 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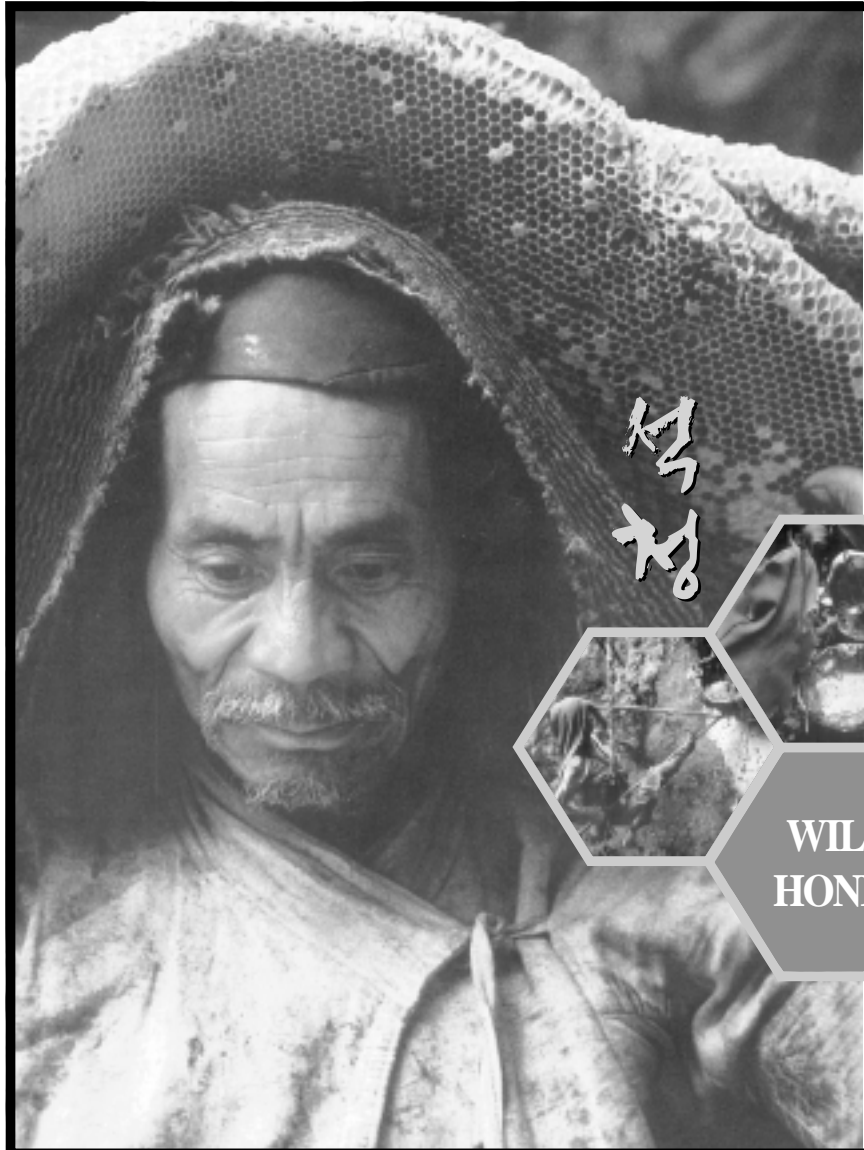
독자들의 질의와 답변

Q 생각의 근원과 생각의 흐름에 대해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A 생각의 근원은 생각이 나오는 곳, 즉 직관입니다. 생각의 흐름은 직관이 파도치는 것입니다. 직관이 부딪치면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계속되는 것이 바로 생각의 흐름입니다. 생각의 근원에서는 생각의 흐름을 주시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나 감정으로 끌려가는 것은 윤회고, 그것을 주시하는 것이 해탈입니다. 생사해탈 한다는 것은 사고와 감정은 흐르되,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Q 선정삼매란 무엇입니까?

놀라운 NEPAL 히말라야 석청(꿀) WILD HONEY 효과



석청은 네팔 히말라야산 2500-4000M의 높은산에서 서식하는 ‘아피스라보리오사(Apis Laboriosa)’벌이 만들어 내는 천연 꿀로서 옛날부터 신비의 물질로 알려져 왔다. 이벌은 덩치가 크고 사나우며 높은 바위에 벌집을 짓고, 벌집의 크기는 자동차 크기만한 것도 있다. 석청을 채취하는 사람은 ‘바랑게’라 부르며, ‘뱃줄로 사다리를 만들어 높은 바위속으로 올라가 석청을 대나무장대로 채취하며, 밑에서는 연기를 피우며 거물로 떨어지는 석청을 받는다.

석청은 난치병 치료에 특효하며 히말라야 한의사들은 민병통치약이라 부른다.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며 네팔왕실에서는 국기를 방문하는 귀빈들에게 답례품으로 사용하고 있다. 석청이 알려져 우리나라 KBS에서 2번이나 현지에서 석청 채취장면을 촬영하여 방영한 바 있다. 고질병, 난치병 치료에 효과와 체험 사례들이 알려져, 여성잡지「Queen」에 당뇨치료 효과가 특집으로 소개되어 국내에서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다.

- 굳어있는 세포를 생성시키고, 15일만 복용해도 정력이 왕성해져 ‘비아그라’ 이상의 효과를 나타낸다.
 - 복용후 2~3주가 지나면 오장육부가 좋아져 피부가 윤곽해진다.
 - 암, 간염, 위궤양, 위염, 중풍, 당뇨, 고혈압, 아맹증, 아토피성피부, 관절염, 기관지천식, 신경통, 중이염, 만성두통, 변비, 성기능 장애등 고질병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낸다. (혈액순환장애)
 - 체질을 개선하고, 노화를 방지한다.
- ※이른 부위가 화끈거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롱아롱하고, 땀이 나고, 설사나 대소변이 대량으로 배출되고, 의식이 몽롱해지고, 눈물이 나기도하는 증세들은 사람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체질이 변하고 있고 치유되고 있다는 증거로 생각하면 된다.

KOREA, NEPAL EXCHANGE CULTURE ASSOCIATION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8동 159-48 TEL : 02)2692-5363

울산사무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소호리 690-1 TEL : 052)264-0126, 0577 M.P : 010-5559-5570 / 010-7159-4759 E-mail : JUNGRANI227@hanmail.net

正品供給

- 가 격 : 600g(15일분) 30만원 / 1kg(1달분) 50만원 ※현재 백화점 소품몰에서 1kg(1달분)을 10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 문 의 : 010-6232-6295 / 010-5559-5570 054-751-9755

•온라인 : 신협 10115-13-032450 최정란 / 경남은행 540-21-0500183 최정란 (입금후 2일내 배송)